

전북도 문화재위원회, 새롭게 구성

문화유산 정책 수요 증가 반영
문화재 분야별 전문가 보강해
운영 효율성 위해 인원 재조정

전북도(지사 송하진)는 앞으로 2년 동안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될 제25기 전북도 문화재위원회(30명)를 새롭게 구성했다.
24일 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된 위촉식과 회의에서 임기 2년(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의 위원장단을 선출했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 수요의 증가를 반영하고, 문화재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했다.

문화재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대중성을 고루 갖춘 현직 전문가들을 위촉했으며, 지정 신청이 증가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늘려 도민의 눈높이에서 문화재 정책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문화재위원 중 40%를 여성위원으로 위촉해 문화재 분야에서 양성외의 의견이 평등하게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 목표 실현을 추구했다.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전체 위원회 및 분과별 위원회 인원을 재조정



2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촉식 수여 및 회의에 송하진 도지사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하고 박수를 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

산이라면, 법과 원칙의 범위 안에서 너무 보수적인 관점보다는 유연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북의

문화 품격을 높이고, 도민 눈높이에서 문화유산 정책을 판단하고 추진하는 기틀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무주청소년수련관, 올해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거점 선정

무주청소년수련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거점' 사업에 선정돼 오는 3월 16일부터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4시~7시 총 6회기의 걸쳐 교육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1975년 베네수엘라 경제학자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가 조직했던 '음악을 위한 사회행동'을 정신으로 하는 베네수엘라 국립 청년 및 유소년 오케스트라 시스템 육성재단으로 음악을 이용해 미약과 범죄에 노출된 빈민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대면적인 성장을 위해 '음악을 위한'이 아닌 '음악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고 다양한 계층 또는 문화적 기반의 아동들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회통합의 기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사업은 신규·연속 거점기관(1~3년차), 지역협력 거점기관(4~6년차)을 거쳐 7년차에는 완전한 자립 거점기관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무주군과 협약해 교육 참여자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수혜 마련 및 학습을 지원한다.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진행되며 1인 1악기 제공을 하고 있다. 주 2회 악기 파트별·양상별 및 전체 합주 교육이 실시되고, 원거리 아동·청소년에게는 차량이 지원된다. 선정이 된 후에는 13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무주=전문선 기자

사경(寫經)에서 꽃이 피어나네

김길두 개인전, 26일부터
도립미술관 서울관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 서울관에서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김길두 개인전'이 열린다.

무행(無行) 김길두 작가는 군산 출생이며 이번 전시는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이다. 평산(平山) 유형재 선생에게 사사 받았으며, 다수의 기획·초대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 강서서예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길두 작가는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각종 종교의 경(經)을 작품으로 만들어낸다. 천부경, 도덕경, 불경, 유교경전, 성경 등의 전문全文(全文)을 사경화(寫經畫)로 표현한다. 명화의 선(線), 불교의 공(空)사상의 사경을 점묵시켜 글자와 한자, 한자의 세포(細胞)를 작가만의 감성으로 움직여 선(線)이 되는 과정을 나타냄으로써 새로운 예술장르를 창출하고자 한다. 회자(繪畵)되고 있는 경구(經句)를 재구성

하여 지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안식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Part I, Part II로 구성되어 있으며 Part I에서는 각종 경전을 우리 민족에 유입된 역사적 순서대로 배열하여 시간적 흐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Part II에서는 풍류마당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시대 여류 시인과 김삿갓의 시를 회화적으로 표현하고 산수화, 문인화 등에 고전과 현대회화의 회화적 요소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여히 현대라는 가치를 수용하여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신선한 실험이자, 변화의 모색이다.

춘천 창녕사 터에서 2001년 우연히 발굴된 나한상이 2019년 4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영월 참령사터 오백나한'으로 전시되었다. 작가는 이 전시를 보고 영감을 얻어 작품을 진행하던 시기에 지하철 안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나한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작품 하나 하나에 우리의 얼굴을 찾을 수 있으며 누구나 다 나한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나한은 최고 깨달음을 얻어 불법을 지키고 대중을 구제하는 임무를



김길두 작 '나한도'

지닌 불교성자를 뜻한다. 작품은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어 마치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도록에 수록된 작품에 대한 설명은 독자, 관람객과의 소통을 위해 나타나는 하나의 대화방식으로 재탄생 된다. 결국 각종 경(經) 속에 녹아있는 메시지를 새로운 예술표현 방식으로 관객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시, 서, 화를 현대와 고전에 함께 점묵시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게 하고 보는 이들이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안락함과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진성 기자

조선왕조실록 이안길을 걷다

정읍문화원, 전주 경기전에서 내장산 용굴암까지 66km 거리

정읍문화원은 최근 역사 관련 전문가들과 문화원 관계자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선왕조실록 이안길 걷기'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정읍의 안의(安義, 1529~1596)와 순흥목(孫興穆, 1537~1600) 두 선비가 조선왕조실록을 지키기 위해 가슴들을 이끌고 62개 짝에 달하는 실록과 여진을 경기전에서 내장산 용굴암까지 옮긴 것을 재현해보는 행사다. 조선왕조실록이 이안되었던 파란길을 더듬어 찾아보게 함으로써 지역 향토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 참여자들은 전주 경기전에서 시작해 내장산 용굴암까지 약 66km 거리를 걸었다.

첫날에는 전주 경기전에서 출발해 완주군 구이면을 지나 정읍 산외까지 약 30km를 걸었고, 둘째 날은 산외에서 출발해 칠보를 지나 내장산 용굴암까지 약 36km 걸었다.

참여자들은 오늘날 국가와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해야 하는 세계기록 문화유산을 지켜냈던 지역 선비들의 발자취를 찾아가며 지역적 자



공심을 키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온전한 조선왕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은 개인의 노력으로 국가의 문화재를 지킨 첫 사례이다.

이를 기념해 정부는 지난 2018년 조선왕조실록을 정읍으로 옮긴 날인 6월 22일을 '문화재 지킴이 날'로 제정했다.

이듬해인 2019년 '문화재 지킴이 날' 첫 번째 기념식이 정읍 내장산에서 개최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